보도

방치된 폐시약통, 위험하다

이후승 기자 hooseung.lee@khu.ac.kr

【국제】 실험실이 존재하는 단과대학 외부에 버려진 폐시약통이 학생들의 걱정을 키우고 있다.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시약 중에는 인화성·가연성 물질 및 폭발 가능성이 있는 물질도 존재하기 때문에 처리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러한 폐시약통이 무방비 상태로 외부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폐시약 및 폐시약통 처리는 관리과가 담당한다. 관리과에서는 실험실이 있는 단과대학에 연 1회 업무연락으로 실험 폐기물 처리 매뉴얼을 전달한다. 국제캠퍼스 공과대학, 생명과학대학, 전자정보대학 4층 동서의학대학원 실험실이 대상이다. 우선 각 실험실 책임자가 규정에 따라 폐시약·폐시약통을 건물 외부에 설치된 '임시보관함'으로 반출한다. 관리과는 임시보관함에 보관 중인 폐시약·폐시약통을 수거해 관리팀 소속 폐기물 보관창고로 이동한다. 이후에는 실험 폐기물 전문 처리 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한다.

관리과에서 전송하는 교내 실험 폐기물 분리 배출 안내문에 따르면 임시보관함은 각 건물 외부에 설치된 '실험실 폐기물 보관함'으로 명시돼 있다. 세부적으로 물로 희석된 묽은 시약은 20리터 말통(전용 용기)에 모아서 밀봉한 뒤 반출하고, 농도가 짙은 시약은 보관 용기에 담긴 그대로 밀봉한 뒤 종이박스에 모아 임시보관함에 넣어야 한다. 관리과 고혁기 폐기물 처리 담당자는 "단과대학 외부 철제 임시보관함에 넣는 것이 규정"이라며 "밖에 방치한다면 병을 건드려 깨질 수도 있고, 비가 와 어딘가로 흘러들어간다면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폐시약통이 생명과학대학 뒤편에 방치돼 있다 (사진 = 이후승 기자)

전자정보대학(전정대) 건물의 경우 강산으로 분류되는 염산, 질산 등의 빈 병이 실험실 폐기물 보관함 밖에 무방비로 놓여 있었다. 전정대 행정실 박은규 계장은 "전자정보대학 4층에 있는 동서의학대학원 실험실에서 사용한 시약일 확률이 크다"며 "동서의학대학원에 협조를 부탁하지만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 반면 동서의학대학원 행정실 측은 "모든 실험실 책임자에게 확인해 본 결과 폐시약통을 임시보관함 외부에 두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답을 내놨다.

생명과학대학은 상황이 심각했다. 11월 2일 임시보관함은 비어있었고 바닥에는 27개의 시약병이 놓여있었다. 그 중 6개의 병은 밀봉이 되지 않았다. 시약병이 들어있는 종이 박스도 밀봉 되어있지 않았다. 생명과학대학 행정실 측은 "안전점검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임시보관함에 넣으라는 규정을 학생에게 전달한다"며 "행여 외부에 통을 놓는 일이 발생할까봐 시약 통이 밖에 놓여있는지 항상 확인한다"고 말했다.

실험실이 존재하는 공과대학에서는 시약을 모아서 배출하는 20리터짜리 말통이 밀봉된 채로 놓여있었다.

관리과에서는 "전임자가 임시보관함을 수요에 비해 작게 만든 것은 사실"이라며 "내년에는 예산에 따라 보관함을 더 크게 만들어 놓을 것"이라고 했다. "학생들이 규정상 병째로 배출해야 하는 시약통을 하나씩 배출하지 않고 실험실 안전관리나 리모델링과 같은 정리를 할 때 한꺼번에 버리기 때문에 종이박스 채로 보관함 밖에 두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안전관리에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아 교내 학생들의 불안을 키우는 책임자들의 변화가 촉구된다.

"듣기평가도 아니고…" 국제캠 화상 강의 또 말썽

신정인 기자 sji0201@khu.ac.kr

경영대학 화상 강의가 또 말썽이다. 국제캠퍼스(국제캠)에서 경영대학 강의를 화상으로 수강 중인 한 학생은 "매시간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잘 들리지 않고 필기 내용도 알아보기 어렵다"며 불만을 제보해왔다. 비슷한 내용이 교내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도 게시됐다. 기계 결함으로 수업 진행이 어려워 갑자기 수업이 취소된 적도 있으며 평상시에도 문제가 자주 발생해 수업에 지장을 준다는 내용이었다.

경영대학은 경영학을 다전공하는 국제캠 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캠에도 경영학 강의를 지속적으로 개설하고 있다. 담당 교수가 직접 국제캠에서 강의하는 형태가 대부분이지만 화상 강의 시스템을 활용해 서울캠퍼스 강의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형태를 취하기도 한다. 화상 강의는 전용강의실인 외국어대학 306호에서 진행한다. 현재 개설된 화상 강의는 1개이며 이는 지난 학기에 비해 1강좌 감소한 수치이다.

문제는 이런 화상 강의의 학습 환경 문제가 이번 학기만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1학기에 화상 강의를 수강한 허욱(러시아어학 2013) 학생은 "화상 연결문제로 휴강했던 적이 있었다"라며 "현재 SNS 등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들 모두 지난 학기에도 똑같이 일어났던 일들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별다른 조치는 취해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며 수업을 듣는 학생들 모두 화상 강의 자체가 갖는 한계라고 생각하면서 대부분 그냥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고 답했다.

관계자는 기술적인 문제와 네트워크의 오류를 문제의 원인으로 꼽았다. 경영대학 행정실 배금옥 과장은 "회선 상의 문제로 인해 연결이 잘 안 됐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어대학 송혜경 실장은 "화상 강의가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경영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나 프로그램이 외국어대학에 설치된 것과 잘 호환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학기 수업 진행에 여러 차례 제동이 걸리자 두 단과대에서도 기계 상의 문제를 점검하고 문제가 있는 기기를 교체했다고 밝혔다. 화상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심규영(회계세무학) 교수는 "중간고사 기간에 대대적인 점검을 부탁했었다"며 "기계 교체 및 정비 후 테스트 녹화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연락을 받았으니 돌아오는 수업부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앞으로는 매시간 녹화를 하고 연결에 문제가 있는 날은 녹화본을 KLAS에 업로드할 예정"이라며 차선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강의환경 개선을 위한 해결책은 또 있다. 익명의 제보자는 "수업 시작 10분 전에서야 기계를 켜고 연결을 시도하니 수업을 제시간에 시작할 수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으며, 기계 수리 담당자도 "시스템의 문제라기보다는 상황 문제도 큰 것 같다"는 말을 전했다. 실제로 해당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조교 역시 "수업 전에 일찍 시스템을 준비해야 한다는 말에는 적극적으로 동의하지만 수업이 연속으로 있어 이전 수업 중에 들어가서 점검하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화상 강의라는 특수한 환경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 좀 더 충분히 주어진다면 강의 지연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이다. 화상 강의를 진행하는 두 단과대는 강의의 특수성을 고려해 통신문제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50대 총학 선거 임박, 서울캠 27일, 국제캠 21일부터

설지연 기자 jy0622@khu.ac.kr

양 캠퍼스 50대 총학생회(총학) 선거 일정이 확정됐다. 서울캠퍼스는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후보자 등록기간을 거친 후 16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될 예정이다. 24일까지 선거 운동이 진행되며, 투표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진행 될 예정이다.

국제캠퍼스(국제캠)의 선거일정은 이보다 빠르다. 후보자 등록은 이미 지난 1일부터 시작됐다. 오는 7일부터 20일까지 선거운동이 진행된다. 국제캠은 각 단과대 투표기간과 총학생회 투표기간이 다르다. 단과대 투표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총학생회 투표는 21일부터 23일까지로 하루 더 진행될 계획이다.

특히 국제캠은 이번 투표부터 전자투표 방식이 도입될 예정이다. 지난달 18일 제4차 확대운영위원회 결과 '전자투표 찬반안'이 2/3이상 찬성으로 가결됐고, 전자투표 도입을 위한 회칙 근거 또한 마련됐다. 서울캠은 지난 47대 총학 선거부터 전자투표를 도입해왔다. 이로써 양 캠퍼스의 총학 선거 모두 전자투표로 이뤄질 예정이다.

국제캠 전자투표는 투표와 집계만이 전산 시스템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서울캠과 달리 모바일을 이용한 원격 투표는 불가하다.

Kyung Hee University
School of Dance

2017 무용학부 창작공연

Young Choreographer's Dance Project

일시 | 2017.11.13(Mon.), 14(Tue.) 5pm
장소 | 경희대학교 무용학부관 다목적홀 (102호)
주최 | 경희대학교 무용학부
후원 | 무용학부 49대 학생회, 문화아이템팩토리센터

11월 2째주(11.06–11.10 취업진로 프로그램 안내)

'취업 · 진로 준비!! 취업진로지원처와 함께 하세요.'

1. 기업체 채용행사 및 취업특강

행 사 명	일시	장소	비 고
키세아 뉴욕 인턴쉽 설명회	11.06(월) 13:00–15:00	청운관 B117호	취업 설명회
키세아 뉴욕 인턴쉽 채용면담	11.06(월) 15:00–17:00	청운관 1층 상담실	
핸켈 GDP 외국계기업 설명회	11.06(월) 15:00–17:00	청운관 B117호	취업 설명회
세아상역 채용설명회	11.06(월) 14:00–16:00	중앙도서관 1층 시청각실	
청년취업아카데미 설명회	11.06(월) 16:00–18:00	중앙도서관 1층 시청각실	취업 설명회
투이 컨설팅 채용설명회	11.07(화) 14:00–15:00	청운관 B117호	
금융권취업상담	11.07(화) 16:00–17:00	청운관 1층 상담실	취업 특강
JW 메리어트호텔(서울)채용설명회	11.07(수) 10:00–12:00	청운관 B117호	
국내항공사취업1:1 상담회 (코세아)채용면담	11.08(수) 13:00–17:00	청운관 1층 상담실	
비콘 코리아 채용설명회	11.08(수) 15:00–16:30	청운관 B117호	
비콘 코리아 채용면담	11.08(수) 16:30–17:30	청운관1층 1번상담실	
아워홈 채용설명회	11.09(목) 14:00–16:00	청운관 B117호	
재직동문과 함께하는 사회진출 Career Day	11.07(화) 12:00~13:30	중앙도서관 시청각실	특강
	11.07(화) 13:00~17:00	오픈랩(운동장 기숙사)	직무면담
저학년 진로 설계 아카데미	11.10(금)~11.11(토) 09:00–18:00	홈페이지 참조	취업프로그램

※ 위 일정은 기업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참가방법 : 사전 신청 필요(행사 당일까지 가능)종합 정보시스템 – 인터넷 신청 – 연수 신청 – 해당 설명회 '신청하기' 클릭 – 완료
※ 신청 후 '합격여부' 발표는 하지 않습니다.
※사전 신청 학생 및 당일 현장 신청도 가능하며, 신청서는 당일 해당 장소 출입문 쪽에 비치 함.
• 출석 협조전 발급 : 각 채용설명회 종료 후 현장(설명회장 입구)에서 발급 및 배부
• 기타 사항은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취업행사 카렌다 참고.

2. 취업진로지도 맞춤 컨설팅 (취업상담)
• 대상 : 본교 학부 재학생, 졸업생
• 상담 내용 :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작성법 지도, 면접스킬 지도, 기업 및 직무 분석법, 로스쿨 진학 등

상담유형	일시	담당 컨설턴트	장 소	신청방법
개인	월요일 ~ 금요일 (전문 컨설턴트)	이연의	오비스홀 355호	종합정보시스템 「수업/성적/상담,신청
		박언경	제1법학관 107–2호	
		홍상기, 오신종	청운관 6번 상담실	

• 상담 신청자 의무 : 취업준비도 검사(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하단에 위치) 상담 전 · 후 각 1회(총 2회) 필수
• 주의사항 –상담 당일 취소 불가 (상담 당일 1일 전까지 가능, 취소 시 전화 연락)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한 경우 당일 2부씩 출력하여 지참(필수)

3. 2017년 하반기 채용 캠퍼스 리쿠르팅

신청 기간	일시	모집 대상	신청방법
~2017.11.12.까지	홈페이지 참고	기졸업자, 2018년 2월 졸업 예정자	EY 한영 홈페이지(http://www.ey.com/kr/ko/careers/students)

자세한 사항은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해 주세요.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http://job1.khu.ac.k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khujob · 연락처 02–961–0167~8, job@khu.ac.k · 위치 청운관 1층 학생생활지원존

서울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